

사상 최초 온라인개학 수업혼란 최소화 관건

대한민국 학교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개학 첫날인 9일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 먼저 원격수업을 시작하며,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개학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부터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초·중·고교의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 연결로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등 동영상 수업을 보고 토론 등을 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담당 교사가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수업 방식을 채택하며, 교사에 따라 2~3가지 유형을 섞어서 쓸 수도 있다.

여하기로 했다. 교사들이 가르침에 쓸 도구도 문제다. 교사들의 대표적인 걱정은 '학습관리시스템' (LMS)이다.

원격수업 유형에 상관없이 교사가 학습자료와 과제를 공지·공유하고 출석을 관리할 LMS가 필요하다. 교육 당국이 제공하는 LM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RS)의 e학습터와 EBS의 'EBS 온라인클래스'가 있다. 각 사이트 콘텐츠와 수업을 연계해 학생들의 진도율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런데 e학습터는 지난 3일 새벽 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교사들이 업로드한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사고가 있었다. EBS 온라인클래스 역시 때때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제공하는 LMS가 불안정하다 보

교육부서 추천한 원격학습 도구들 서버 불안 여전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없거나 부족한 가정도 많아

어느 방식을 쓰든 '가르침'과 '배움'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보니 가르침과 배움에 쓰이는 원격수업 도구부터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먼저 우려가 쏟아졌던 것은 학생들이 배울 도구가 충분하냐는 문제다. 원격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스마트폰이 한 대 있어야 하며, 원활하게 큰 화면으로 수업을 들으려면 스마트패드나 노트북, PC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없는 초·중·고교생이 몇 명인지 조사해보니 총 22만3천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 대여해줄 스마트 기기를 총 32만1천대 확보했으며 기기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가 23만대, 교육부가 5만5천대를 비축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만6천대를 기증했다.

기기는 교육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대여하고, 다자녀·한부모·조손 가정 등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대

니 교사들은 '클래스123', '구글 클래스룸' 등 민간업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은 민간 프로그램까지 능숙하게 다루지만, IT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교사들은 원격수업은 물론이고 LMS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교사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수업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 쓸 화상회의 프로그램도 교사들이 걱정하는 불안 요소다. 교육 당국은 미국 업체가 만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 다루기 쉽고 기능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권장했는데, 최근 미국에서 줌이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교는 아예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일부만 하고, 단방향 콘텐츠형과 과제형 수업만 하기로 했다.

조인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호남권 선대본부장을 비롯한 광주·전남 출마자들이 8일 광주 서구 죽봉대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회의실에서 위선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경숙 기자

반환점 맞은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지지층 결집 사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8일로 반환점을 돌면서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9일부터는 모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펼쳤던 후보들은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광장 유세 횡수를 대폭 늘리고 대면 접촉을 확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광주·전남에서 싸움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8일 광주를 찾아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선거대책위원회를 갖고 10~1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세물'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에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일체성을 거듭 부각하고,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이낙연 마케팅'을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본투표 날에는 줄을 서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하면서 투표를 많이 해달라"며 "민주당이 1당이 되

려면 사전투표에서부터 많은 분이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에 국회의장도 빼앗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물거품이 된다"며 "사전투표부터 본투표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는 1번 민주당, 비례대표는 5번 시민당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패기'를 통해 진보 지지층을 잠식하고 있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이름만 비슷한 정당과는 통합

민주당, 광주 찾아 합동선대위 '원내 1당 못되면 검찰개혁 물거품'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 "경제위기 초래한 문재인 정권 심판 해달라"

다"고 못박았다.

호남권 선대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번 투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난 극복 투표라고 정의하겠다"면서 "꼭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더불어시민당 우회총 공동선대위원장은 "시민당은 김대중의 정신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함께하는 정당"이라면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민당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미래통합당도 국민여론은 정권심판론에 있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통합당은 특히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버는 '사이 보수층'과 부동층의 막판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바락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근본적으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라면서 "이미 여론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최영범·허성은 기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움에는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COUNCIL

http://igoheung.com/